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깨끗하고 접근하기 쉬운 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과 국제사회는 1992년 세계 물의 날을 채택하면서 SDGs의 여섯 번째 목표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지향해왔다. 그 성과로 UN WATER에 따르면 1990과 2015년 사이에 26억 명이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위생 설사 질환으로 매일 약 1,000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 또한 아프리카 지부티 중학교의 64.7%(2015년 기준)는 화장실 시설이 없고, 아프리카 토고 중등학교의 27.5%만이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있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이렇게 높은 사망률과 비위생적인 환경은 개발도상국의 학업성취도와 취학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2017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 등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들을 다루는 회의이다. 이러한 정상급 유엔 무대에서 각국 고위인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업이 있다. 작년 HLPF 기간 중 개최된 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모델이 제출되었는데, 이 내용이 공식 의견서로 채택되었다.

‘투모로우 워터 프로세스’(Tomorrow Water Process)로 불리는 이 모델은 한국을 대표하는 환경기업이자 하수처리·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분리막 전문기업인 부강테크의 미래기술이다. 이 모델은 고농도 폐수인 가축분뇨의 처리와 하수도, 지하수의 정화 등을 부강테크가 독자 개발한 기술로 해결해 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하수와 가축분뇨 그리고 지하수 정화는 중요한 환경 개선사업이다. 또한, 수준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구와 인류 미래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환경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에서 여기에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하수를 질소와 인, 유기물질 등으로 전환하여 자립형 에너지를 구축함으로써 돈을 쓰던 처리시설을 돈을 버는 환경으로 만드는 ‘투모로우 워터 프로세스’ 모델이다.

둘째, 사물 인터넷과 빅 데이터, AI(인공지능)에 의한 하수 처리장 설계 및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워터 팩토리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물을 단순히 마시고, 쓰는 대상이 아닌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도시의 핵심자원으로 삼는 스마트 워터 시티 모델이다. 유엔은 이러한 모델이 전 세계 193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 기술로 보고 있다.

이처럼 유엔은 물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SDGs의 여섯 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개발도상국의 상하수도 시설이 개선되어 충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학업성취도와 취학률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http://unaikorea.org/news>

f i l e : / / / C : / U s e r s / 정진우
/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GLNEXQMG/KWRA_1_2016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6001471>